

29일 Market Index			
코스피	2565.42	코스닥	726.46
	(+16.56)		(+7.05)
금리	2.310	환율	1432.45
	(-0.006)		(-10.15)



제21대 대통령선거 홍보 현수막 게시
29일 오후 서울 중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뉴시스

LS전선, 트럼프 2기 첫 美 투자 1조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 착공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환 교두보 VCV타워 등 최고수준 인프라 구축 330개 이상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LS전선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LS전선은 자회사 LS그린링크가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제조 공장을 착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총 6억 81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다.

LS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자립 전략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끄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내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현지 조달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장은 엘리자베스강 유역 39만 6700㎡(약 12만평) 부지에 들어서며 연

면적은 약 7만㎡(약 2만평) 규모다. 오는 2027년 3분기 완공,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 향후 글로벌 수요에 따라 설비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생산 설비에는 201m 높이의 VCV 타워와 전용 항만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HVDC(고압직류) 해저케이블의 생산부터 운송,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특히 VCV 타워는 버지니아주 내 최고층 구조물이자, 필라델피아에서 살럿 사이 동부 해안권에서 가장 높은 산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공장 건설로 지역사회에는 33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규 LS전선 대표이사는 “LS그린링크 공장 건설은 LS전선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선 빅3, 세자릿수 ‘깜짝 성장’ LNG선·컨선 앞세워 쾌속 질주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2조 돌파 2022년 수주 인도 효과 본격화 高환율에 한미 협력 등 ‘접호제’ K-조선, ‘2차 초호황기’ 지속

국내 조선사들이 1분기 여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비중을 높이고 있어 2차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 ‘빅3’(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가 1분기 세 자릿수 실적 성장을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7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6.3% 증가한 8592억원, 순이익은 6166억원으로 216.4%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143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86억원으로 388.8% 증가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4943억원,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1231억원을 기록했다. 빅3의 1분기 합산 매출은 12조4091억원, 영업이익은 1조2409억

원으로 2008년 전후로 누렸던 슈퍼사이클을 다시 누리고 있는 상황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인도되고 있는 선박들은 지난 2022년 수주했던 선박들로 과거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또한 달러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조선업 특성상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선박인도 시점에서의 환율 상승은 매출 증가로 직결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증명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낭보를 연달아 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오세아니아 선사와 8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1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에는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고, 24일에는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며 최근 총 22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8척을 수주해 26억 달러(약 3조 700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14척을 수주해 약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겹치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를 원하고 있어 군함·LNG선 등 고부가선종을 중심으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함께 주요 의제로 거론되기도 하면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주 방한을 앞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도 일본 니혼게이지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같은 조선업에 뛰어난 동맹국과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며 “우리는 즉시 행동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분기점이다”라고 전했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LNG선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70여척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 LNG선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매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밀 유출 막자” IT·재계, 유심교체 권고

‘SKT 유심 해킹’ 후폭풍 기업들 ‘보안 강화’ 긴급 대응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해 최대 9.7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IT 업계와 재계는 사내 보안 강화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유심(USIM)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보다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8면〉

29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8일 오후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감지했다. 이후 9.7GB 분량의 정보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유심 관련 핵심 정보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T월드 매장에 ‘유심 재교 없음’ ‘익일 50개 입고 선착순’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문서로 환산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 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NHN, 넷마블 등 IT 기업들은 사내 공지를 통해 SK텔레콤 이용 임직원에게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삼성전자 등 재계 주요 그룹 역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임직원 개인정보 탈취가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제정신인가요” 이낙연 ‘반명’ 빅텐트에 지역 정치권 맹비난
▲정청래 “이낙연, 한덕수와 단일화하려는 건 철새 짓”
/사진 뉴시스

▲최재형 “한동훈, 범보수 연합 추진… 이재명 박스권 감해”
▲안철수 “누가 최종 후보 되든 이재명 막는 데 힘 바칠 것”

▲외교부 “북 파병 인정 무관, 북한군 전쟁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
▲韓총리 출마설에 또 ‘대대행’ 체제?… 관세협상·선거관리 어찌나